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www.metrobusan.co.kr

"온누리에 평화" 간절한 기도 성탄절인 25일 전국의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예수성탄대축일 낮미사에서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염수정 대주교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축복이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팝 앞세운 K게임 중국 점령

소녀시대 모델 '블소' 하루 매출 무려 50억 · 미쓰에이·2PM 앞세운 '크로스파이어'도 쌍끌이 한류

우리나라 게임과 K-팝이 손잡고 쌍끌이 한류에 나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앤소울'(이하 '블소')이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돼 하루 매출 50억원을 돌파했다. 검령(劍靈)으로 불리는 블소는 이번달 현재 중국 게임 시장 아이템 거래량 2위, 게임 등록기적 1위를 기록 중이다. 업계에서는 블소의 내년 중국 매출이 연간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륙을 정벌한 블소의 인기에는 한류를 이끄는 K-팝 시너지 효과도 컸다. 블소 중국판 홍보모델은 현지 배우가 아닌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현지 배급을 맡은 중국 최대 IT업체 텐센트가 홍보모델로 소녀시대를 발탁하자고 먼저 제안이 왔다"면서 "중국에도 연예인은 많지만 소녀시대만큼 범아시아적 인기를 누리는 모델이 없었다는 평"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를 감동한 게임 한류에는 현지화 노력도 배어있다. 소녀시대는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텐센트 주최 게임 행사 'TGC 2013'에서 블소 주제곡 '파인드 유어 솔(Find your soul)'을 중국어로 불러 큰 화제를 모았다. 중국 게임업계에서 외국인 모델이 중국어로 활동하는 일은 드문 사례라 폭발적 반응이었다. 엔씨소프트는 중국 이용자들을 겨냥해 블소 캐릭터 의상을 중국 전통 복장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탄탄한 게임 콘텐츠와 인기 K-팝의 영향 분은 중국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상하이 상업지구 쉬자후이 전철역 환승 통로에는 소녀시대가 등장한 블소 홍보 간판이 150m 길이로 걸려있을 정도다.

게임과 K-팝의 쌍끌이 한류는 블소만이 아니다.

중화권 온라인게임 순위 1위이자 브라질 슈팅게임 1위를 기록 중인 1인칭 총격게임(FPS) '크로스파이어'의 제작사는 국내 기업 스마일게이트. 홍보모델은 2PM과 미쓰에이다. 이는 스마일게이트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전략적 제휴를 한 것으로 수지·택연·닉쿤 등의 인기 가수가 크로스파이어 캐릭터로 등장하는 형식을 취한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새로운 콘텐츠 시장 발굴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협력 체결식에서 표종록 JYP 부사장은 "단순히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만남이 아닌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최전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엔씨소프트 경공호 팀장은 "블소는 개발 단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고, 현재 공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과 걸그룹이 손잡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현상은 한류를 만드는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한국 게임이 해외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블소 중국판 모델로 활동 중인 소녀시대 윤아(왼쪽)와 크로스파이어 캐릭터로 나오는 2PM과 미쓰에이.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종교계가 나서서 해결해달라" 조계사에 은신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5일 밤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합장을 한 채 극락전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사 둘러싼 경찰 병력 25일 경찰 병력이 조계사 주변을 지키고 있다. 경찰은 철도노조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절에 드나드는 시민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뉴시스

철도노조 품은 조계사

지도부 "강제로 내보내지 않겠다"·경찰 3개 중대 250명 주변 배치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들이 몸을 숨긴 서울 종로구 조계사는 25일 성탄절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밤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 박 부위원장은 보함한 노조원 4명은 극락전에 은신한 채 밤을 지새웠고, 종교 시설에 진입할 수 없는 경찰은 사찰을 둘러싸고 3중대 250명의 경력을 배치한 채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밤새 배치 경력을 1개 중대에서 3개로 증강했다.

경찰은 관광객과 신도를 제외하고 절에 드나드는 시민들을 철저히 확인히 면에 바나 경내에 있던 노조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조계사 측은 은신해 있는 노조 지도부들을 강제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조계사에 들러 박 부위원장 등 4명을 만난 뒤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정부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며 "정치권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의 신변은 안전하다. 파업 대오에는 이상이 없다"며 "강경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17일째를 맞아 서울 용산구 수색동 일대에 있는 철도사업장을 방문해 파로감이 고조된 대체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도 운행률은 3일째 70%대를 유지했지만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역마다 극심한 혼잡이 이어졌다. 때문에 관광객이 몰리는 연말연시 열차표 구하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내년 1월 이후가 문제다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올 한 해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양적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다음달 벤 버냉키 의장의 퇴임을 앞두고 테이퍼링을 결정했다. 연준은 매월 85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했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매입 규모를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만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빠르면 내년 3분기 늦으면 내년 말 정도 양적완화가 종료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8년 11월 시작된 양적완화책 정책이 마침내 여정을 끝내는 것이다. 일단 이번 연준의 결정은 권위보다 현실적 유연성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연준에 쏠린 관심과 부담을 최대한 벗어버리겠다는 의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준의 결정에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놀라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된 이후의 변화다. 이 같은 규모의 양적완화는 유사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는 데 따른 파장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위험 요소로 '엔저의 가속화'를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로 엔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달러 대비 엔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엔화 가치를 달러당 최대 120엔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이머징 시장에 대한 위기 관리도 필요할 때다.

어린이 만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신월동 SOS 어린이 마을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여야 "국정원개혁법안·예산안 30일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배석, '3+3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제활성화 등 민생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들은 최근 예산조정소위에서 합의를 마쳐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한준기자

뉴스 & 뉴스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 서울대는 25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대해 '표절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가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에서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문 논문 본문에서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RFID' 도입공사 1월중 마무리

● 개성공단의 3통(통신·통행·통관) 개선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는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가 내년 1월 중순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추운 날씨 등으로 RFID 공사 진행이 늦춰졌다"며 "다음달 15일 전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먹는 지하수 모두 우라늄 검사

내년부터 300인 미만·20㎥ 미만까지로 대상 확대

내년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모든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우라늄 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5일 내년부터 300인 미만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까지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인 이상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만 우라늄 검사를 해왔다.

마을 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급수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시설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 또는 하루 평균 급수량이 20㎥ 미만인 급수시설이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에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걸쳐 검사하고 2015년부터는 검사 결과에 따라 2년, 3년, 6년으로 차등화해 우라늄 검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상수도와 전국 563개 지점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인 24곳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은 우라늄이 검출된 바 있다. /윤다혜기자 yd@

광고업계 '갑 횡포'도 차단

부대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금지

그동안 국내 광고업계에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던 비용전가를 비롯해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사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광고 제작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제작 의뢰 후 대행사는 영상물 제작과 모델 선외, 장비 대여, 편집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작업을 중소 협력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의상료 등 광고 제작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토록 했다.

계약 체결 전에 제시된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 도용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선지급토록 수정했고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관리 작업 등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검수 기한과 대금 지급 기한의 지연 관행을 막기 위해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했으며 대금 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장병일기자 jacss@metroseoul.co.kr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10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어린이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콘서트 많은 공연장 일대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서울시는 콘서트가 많이 열리는 공연장 일대에서 택시 승차 거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성탄절인 25일부터 31일까지 올림픽공원, 잠실체육관, 코엑스를 포함한 대형 공연장 주변에 택시 단속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점검단은 공연 후 승객이 몰릴 때 발생하는 승차 거부, 호객 행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요구 같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오전 1시까지 이뤄졌던 승차거부 빈발지역 단속도 1시간 연장한다. /김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필

공산혁명가 마오쩌둥 출생

첫 미인대회 부산 개최 아시나요?

지역 기네스 125선 발간 가장 오래된 빵집 백구당

"우리나라 최초의 미인선발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산 사람도 잘 몰랐던 부산의 진기한 기록과 부산을 상징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엮은 '부산을 읽은 키워드 기네스 125선'이 25일 발간됐다.

이 책자는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부산시는 부산 기네스 발굴을 위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395건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부산의 최초, 최대, 최다, 최고 등 기네스 83건과 랜드마크 42건 등 모두 125건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이 책자에 실렸다.

◆기네스(최초) = 모두 31건의 부산 최초 또는 우리나라 최초 기록을 담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 송도해수욕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 자유아동극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극장이란 사실.

또 하나의 우리나라 최초 기록으로 소개한 미인선발대회도 생소하지만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1953년 5월 전쟁으로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키려는 의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인선발대회인 '제1회 여성경염대회(女性競艶大會)'가 부산에서 열렸다.

당시 본선 진출자는 10명이었는데 본선 수영복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속살을 드러내는 수영복 심사는 비공개였지만 수영복을 입은 미녀들을 보겠다고 심사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개회식도 못 하고 본선 심사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첫 미인대회 예선 심사 조건은 ▲미혼 여성일 것 ▲키는 다섯 자(151.15㎝) 정도일 것 ▲몸매는 키에 맞춰 갸름하거나 똥똥하지 않아야 할 것 ▲얼굴의 형태는 동그스름하고 복이 있다고 느껴질 것 ▲전체적인 몸의 균형은 정해 된모양새로서 품위가 있을 것 등이었다고 한다.

◆ 기네스(최대·최다·최고) = 최대 16건, 최다 18건, 최고 15건을 실었다.

최대 기록으로는 세계 최대 실내 영상 음악 분수인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리소와 세계 최대 크기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등을 소개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 전시로 2008년 10월 8일 지갑지특서 때 선보인 길이 5㎝, 폭 3m, 두께 0.3m의 전시에 관한 내용도 실렸다. 당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수지로 만든 이 전시에는 100여 인분의 회가 담겼다.

최다 기록 중에서는 부산 최다 자격증 보유자(김가현씨 28종 보유), 부산에서 사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김지락 씨 1만여 장 보유), 1년간 마라톤 풀코스 최다 완주자(임재호씨 146회) 등을 소개했으며 7937개의 해운대해수욕장 비치파라솔이 세계 최다 비치파라솔(세계 기네스북 등재)로 당당히 자리했다.

최고로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백구당 1959년 개업),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장안사 대웅전 673년(문무왕 13년)),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백수 이발소 1962년 개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랜드마크 = 관광 명소 14건, 문화시설·행사 9건, 자연환경 7건, 대형 시설물 5곳, 먹을거리 등 기타 7건 등 모두 42건을 부산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로 소개했다.

관광 명소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을 필두로 40계단, 가덕도 등대, 태극도 마을, 부산타워, 범어사, 금정산성 등을 꼽았다.

구포 감동 나루터와 고리가요 정과정곡'의 산실인 정과정 유적지도 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상징하는 먹을거리는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에서 빚은 산성 누룩으로 제조한 할막걸리로 우리나라 막걸리 중 유일하게 향토 민속주로 지정된 '산성막걸리'를 비롯해 기장 멸치, 동래파전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흡연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 부담 얼마나 되나

Q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정책 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 기 늘고,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060억원 규모(2011년 기준)라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추가 부담액 연간 1조7000억원은 우리나라 2206만 세대가 부담하는 한 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의 경우 선택진료비는 1조3000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로, 선택진료비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은 급여화할 수도 있는 큰 금액이다.

금연이나 흡연 치료 부분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렌즈로 들여다본 6·25전쟁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 안재철이 25일 부산역광장에서 6·25전쟁 당시의 1950년 11월 27일 ~12월 24일 한반도 북동부에서 있었던 장진호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가 안보의지를 알리는 휴머니즘의 극치 흥남철수작전, 장진호전투 사진전 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세계 67개국 국기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시는 2014년 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제공

지역 4년제대 정시경쟁률 하락

학령인구 감소와 올해 처음 실시된 수능 A·B 유형 입시제도 변경에 따라 수험생들의 교차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부산지역 4년제 대학 201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진종태 전 교수 기부장학금 전달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4일 오전 교내 세미나실에서 진종태 전 교수 기부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진 교수는 부산과기대 기계계열 40명의 학생들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매 학기 40명씩 선발해 5년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 하향 지원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동의대는 201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 1332명에 4809명이 지원해 평균 3.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356명 모집에 6421명이(4.74대 1)이 지원한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

부산대는 2059명 모집에 8164명이 지원해 평균 3.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4.30대 1이었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도 지난해보다 하락한 평균 2.86대 1(1472명 모집 4237명 지원), 4.62대 1(977명 모집 4517명 지원)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부산지역 대부분의 4년제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뉴시스

'비리의 원천 고리원전' 올해의 뉴스 1위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올해 부산지역 행정·경제 분야 10대 뉴스 중 1위로 '비리의 원천, 고리원전 - 마르지 않는 비리의 샘'을 선정했다.

2위는 '대연혁신도시는 투기꾼의 천국도시 - 특혜 주니, 다운계약서에 탈세로 보답'이 꼽혔다.

이외에 ▲전국 100대 기업 하나도 없는 부산 - 언제는 떠나고 출신들은 정체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우선 - 해양경제특구 도입도 불투명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기장군 신세계 이웃렛의 현지주민과 상략과 심각한 교통대란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착공시연 ▲부산~김해 경전철 MRG 보전 ▲더 지 않을 볼 수 없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중교통요금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이 선정됐다.

부산경실련은 행정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20개의 예비 후보를 잡은 뒤 시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인터넷 설문, 현장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연합뉴스

롯데호텔부산 새 얼굴에 이민호

얼마전 종영된 드라마 '상속자들'의 히어로, 탤런트 이민호가 2013년 추반기부터 롯데호텔부산과 함께 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롯데호텔부산은 지난 23일 한류스타 이민호와 함께 홍보대사 위촉식 및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그는 향후 1년간 롯데호텔부산의 대표 모델로 대외적인 홍보 활동은 물론 한류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롯데호텔부산은 그동안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등의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이민호의 고급스럽고 모던한 이미지가 호텔의 이미지와 잘 맞으며 성실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호텔이 지향하는 모습과 일치해 호텔 홍보모델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류스타로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등의 나라에서 막강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민호의 영향력으로 향후 롯데호텔부산의 한류 사업이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부평깡통 야시장 3배 넓어진다

내년 상반기 110→300m로 구간 확대 · 다문화음식 거리 추가 조성도

부산 부평깡통야(夜)시장이 전통시장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9일 전국 최초로 개장한 부평깡통야시장에 주말에는 시민 관광객 등 5000~7000명, 평일에도 평균 2000~3000여 명이 방문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광복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보러온 관광객들이 야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초부터 '광복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와 연계해 야시장 입구까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야시장 입구에 깡통을 캐릭터화한 조형물을 설치해 올 연말까지 포토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야시장을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야시장 구간을 현 110m에서 300m로 규모를 3배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매대도 60대를 추가로 제작해 총 9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 확충되는 구간에는 야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LED 야간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해 특색 있는 야시장 구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곳 야시장에는 향토음식뿐 아니라 평소 맛보기 힘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의 다문화 음식과 다양한 문화공연, 먹거리, 볼거리 등이 많아 부산의 야간 명물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상인들의 매출도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문화 음식 구간 추가 조성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산 제품, 청년 창업가 아이디어 상품 등 판매 제품을 다양화하고 연중 시장 골목 문화공연 개최 및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장을 여는 등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있는 야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 고객들의 쉼터와 문화공간 등을 위해 내년 5월까지 고객지원센터를 지상 4층, 연면적 320㎡의 규모로 설치하고 야시장 카페 등을 만들어 휴식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현재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및 롯데호텔 등에서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매주 부평깡통야시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서도 야시장 투어 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야시장이 활성화되자 지난달 14일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방문한 것을 비롯해 전국 시·도 및 전통시장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찾아 오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연천시, 울산시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부산을 방문해 야시장 운영 현황 및 성공 요인 등을 파악한 것을 비롯해 남대문시장, 수원팔달시장, 전주 남부시장 등 전국의 대형 전통시장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야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야시장 홍보를 위해 해외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해 투어도 진행하는 등 인바운드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뉴시스

해양수산연수원 수산물 기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정청택)은 지난 23일 영도구 푸드마켓에서 삼려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산) 관계자와 함께 연말연시 사랑의 수산물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고등어, 멸치, 미역 등 300만 원 어치에 달하는 수산물을 영도구 푸드마켓에 전달했다.

원양·수산양식업 창업 '0' 신설법인 전년동월비 하락

부산지역 11월 중 신설 법인이 전년 동월 전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이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산업의 경우, 일본 방사능 오염 불안으로 인한 수산물 기피 현상 심화로 원양업·수산양식업 등 관련 창업이 전무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장비 임대 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84개체로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 증가, 기업 자금조달난 등으로 대부업·대출중개업 등 각종 금융서비스 창업은 증가했다.

이는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고부가가치 컨설팅·교육 서비스업, 여행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법인 신설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건설업은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따라 인테리어를 비롯한 실내건축의 창업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6.7% 42개체 증가세를 보였다. 운수 창고·정보통신업은 IT업계 등 국내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30~40대의 생계형 정보통신 관련 창업이 크게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73.9% 증가한 40개체로 각각 나타났다.

동부산 롯데쇼핑몰 내달 착공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추진 중인 롯데복합쇼핑몰이 이르면 다음달 공사에 들어간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기장군으로부터 복합쇼핑몰 신축허가를 얻어 다음달 중으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롯데복합쇼핑몰은 지하 2층~지상 5층에 전체 면적 19만4962㎡ 규모로 완공되면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롯데쇼핑은 이 곳에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포시장도 버스중앙전용차로제 부산의 대표 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은 북구 구포시장 앞 도로에 26일 새벽부터 버스중앙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사진 왼쪽은 기존 도로, 오른쪽은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와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개념도. /연합뉴스

향토기업 BN그룹 신입사원 교육

부산 향토기업 BN그룹은 이달 초 올해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40여 명의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9박10일) 신입사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신입사원들은 교육 기간 동안 직장인 기본 소양과 계열사 생산 공장 방문, 대선주조(주) 영업 실습 등 다방면에서 업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을 수료한 뒤 지난 18일 각 부서에 배치됐다.

특히 모기업 BIP(주)와 부산의 최고(最古) 기업인 대선주조(주)를 중심으로 부산 향토기업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익힐 수 있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BN그룹 지오근 경영기획실장은 "대부분 부산지역 출신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향토기업 BN그룹의 성장 과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지역 인재를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BN그룹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된 신입사원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BN그룹 제공

올해 BN그룹 공개 채용에는 BIP(주)와 대선주조(주)를 비롯한 5개 계열사 17개 부문에 2600여 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이 응시해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BN그룹은 해마다 수시모집을 포함한 100여 명의 부산 지역 출신 인력을 신규 채용해 얼어붙은 지역 고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음주운전사고 해운대 '최다'

매년 평균 1180건 발생 · 부산진구·사하구 뒤이어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밝혀졌다.

24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1180건의 사고가 발생, 3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3.2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1일에 1명씩 사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13.2%를 차지했고, 부산진구(10.3%)와 사하구(9.6%)가 그 뒤를 이었다. 대형 유흥가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실제로도 음주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 셈이다.

음주 교통사고와 가장 거리가 먼 지역은 영도구로 밝혀졌다. 영도구의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의 1.2%로 해운대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중구(2.3%)와 서구(2.6%)도 음주 교통사고가 드문 지역으로 집계됐다.

반면 음주 교통사고 시 치사율은 차량 주행 속도가 높은 시외곽 지역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음주 교통사고 치사율은 강서구가 6.1%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기장군 6.0%, 사상구 3.9%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주말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19.2%)과 일요일(16.3%)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10~12시 사이(17.5%)와 오전 0~2시 사이(17.4%)에 사고가 집중됐다. /연합뉴스

지역 기업 성장성 뒷걸음질 수익성·안정성은 소폭 개선

지난해 부산지역 기업들은 성장성은 크게 뒷걸음질한 반면 수익성과 안정성은 소폭 개선되는 경영 실적을 거뒀다.

25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2012년 부산지역 기업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기업들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5%로 2011년의 13%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총 자산 증가율도 3.8%로 전년의 6%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6%로 전년의 3.5%에 비교해 소폭 상승했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도 2.7%로 전년의 2.3%보다 상승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154.8%로 전년의 160.4%보다 하락해 기업 안정성이 높아졌다.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코스닥
2001.59 (+4.70)	491.08 (+1.45)
금리	환율
2.89 (+0.01)	1056.50 (-2.50)

대기업 직원 남녀비 3대 1…현대위아 97% '男'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코스피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78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남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위아로 전체 직원 중 남성이 97.8%를 차지했고 여천NCC가 97.6%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여성 직원 비율이 더 높은 기업 1위는 롯데쇼핑으로 여성의 비율이 6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보험업에 종사하는 여성 직원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국명기자

<멕시코·브라질·러시아&자이다>

테이퍼링 시작해도 '멕브러치' 먹을만

Issue&View 내년 신흥국 채권 투자 전망

/김현정기자 hjk.win@metroseoul.co.kr

펀더멘털 있는 이들 4개국 자금이탈 우려 적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 붐이 일었던 신흥국 채권의 내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한 해 신흥국 채권은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불거질 때마다 수익률이 추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 말 드디어 테이퍼링 시행을 공표했고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글로벌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면서 신흥국 채권 투자도 경제 기초 체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신흥국 중심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5일 우리투자증권이 JP모건, 바클레이즈, 블룸버그 등의 자료를 취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머징로컬통화국채의 수익률은 평균 약 1.6%를 기록하면서 유럽 투자등급(1.6%)과 동일한 성과를 냈다.

유럽 투기등급(6.5%), 유럽금융 후순위채(8.1%) 유럽 국채(2.6%) 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미국 국채(-1.9%)나 이머징달러표시 국채(-2.6%)를 앞섰다.

오유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신흥국 채권의 수익률은 미 테이퍼링이 내년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상반기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내 축소 발언 이후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양적완화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선진국과 신흥국 채권 수익률의 명암을 갈랐다.

미 연준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행하면 그동안 신흥국에 유입됐던 자금이 다시 이탈하면서 신흥국 경제를 출렁이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 신흥국 채권의 환율이 오르고(통화가치 하락) 금리는 상승(채권가격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위축됐다.

환율이 중요한 변수인 브라질 국채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환차손 우려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내년 1월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되면 이런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흥국 채권 투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 펀더멘털이 있는 신흥국 중심의 채권 투자를 권하며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중국을 유망하다고 꼽았다.

오유미 연구원은 "금리와 환율 측면에서 볼 때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낮은 러시아, 가격 매력이 높은 브라질, 환율 절상이 기대되는 중국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국채 투자가 어려운 중국의 경우 딤섬본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투자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환율 우려가 크다는 견해도 많다.

쌍용건설 상장폐지 불가피

이번 주말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이 무산되면서 상장폐지가 기정사실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건설 채권단은 5000억 원 출자 지원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월말 대금 결제가 연체되고 공사 자질도 불가피해졌다. /김현정기자

펀드매니저 '2등주' 더 샀다

올해 펀드매니저들은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업종별 1등주를 팔고 2~3등주와 경기민감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상수인 삼성전자에만 전체 투신권 순매도의 55.3%(1조9066억원)가 몰렸다.

연금복권520 제130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1조	111834
		5조	075017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847092
4등	100만원	각조	12067
5등	2만원	각조	863
6등	2000원	각조	45,10
7등	1000원	각조	8,6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대표 당규호
사장 편집인 김송학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 2900
독자센터 (02)721-9869
2002년 5월 21일 정간물등록 서울 바 00000

말띠 해 앞두고 조각상도 "이랴~" 2014년 말띠 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갤러리에서 고객들이 말 조각상을 살펴보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은 성서롭고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한다는 청마(말띠)해 말 잇아 청동과 레진, 재질의 말 조각상을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뉴시스 제공

우리투증 품은 농협 '베팅의 기술'

KB와 같은 1조1500억으로 '3사 패키지' 우선협상자에 키움은 우리자산운용 따내

우리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농협금융지주가 가져가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패키지 내 4개 계열사(우투증권·우리아비바생명보험·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자산운용) 가운데 3개를 농협금융이,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이 인수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농협금융을 선정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입찰 가격은 물론 자금조달 계획, 계약서 요구조건, 인수 후 경영 능력 등 비가격 부문의 조건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농협금융은 패키지 인수에 약 1조1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투증권에 1조원, 생명보험에 600억원, 저축은행에 400억원, 자산운용에 500억원이다.

파인스트리트는 패키지 인수에 1조1500억원을 제시했으나 투자확약서(LOC)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감점 요인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은 우투증권에는 1조1500억원으로 최고가를 적어냈지만 생명보험·저축은행의 가치를 마이너스(-)로 평가해 패키지 일괄매각 원칙에 따라 배제됐다.

우리자산운용의 경우 500억원의 최고가를 써낸 키움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별도로 정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농협금융과 키움증권은 오는 26일부터 2주간 확인 실사를 하고, 우리금융과 주식 매매계약 협상을 거쳐 내년 1월 중 본 계약을 체결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일각에서 '헐값 매각' 시비와 배임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날까지 미뤄졌다. /김현정기자

보험사들 5000억 '묻지마 보상'

금감원 민원감축 지침 탓 블랙컨슈머에 과다지급

금융 당국의 보험 민원 감축 밀어붙이기 여파로 5000억원가량의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민원 평가 때문에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들은 민원 감축 지침이 일선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민원 감축 강행 여파로 보험금 '퍼주기'가 만연하면서 올해에만 악성 민원인에게 5000억여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 3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조와 함께 보험 민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금감원이 보험 민원 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 감축 지수를 개발하는 등 보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민원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퍼주다 업계 전체로 5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누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선임대 후분양' 상가 뜬다

사업시행사가 세입자 유치 후 매매계약·공실 걱정없이 투자 매력

미리 임차인을 확보한 뒤 분양에 나서는 '선임대 후분양' 상가가 인기다. 상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상권 분석에 서투르고 공실 걱정에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는 수요자들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나서 세입자를 유치,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이미 입점해 영업 중인 상가를 보면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료에 맞춰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법인 사업자나 프랜차이즈를 임차인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월세 미납 등의 위험이 적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문을 연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노시티 상가가 선임대 후분양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 프레미어스 엠코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시설로 현대엠코가 시행과 시공을 맡았다. 흔들리스 패션쇼핑몰 엔터식스 등이 입점해 있으며 인터식스가 임대로 들어와 있는 매장을 분양 중이다.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시공한 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의 상업시설 '메세나폴리스몰'도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현재 상가 입점률이 95% 수준으로, 대부분 대형 패션업체나 프랜차이즈 매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5년이다. 임대료를 고려해 투자자가 은행 이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분양가를 산정한 게 특징이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한 센트럴파크1 단지 상가인 센원몰 역시 BMW 볼보 ANF 휘트니스센터 등의 키 테넌트 유치 후 투자자를 찾고 있다. 현재 입점률이 90%를 넘은 상태다. 또 인근 센두몰도 선임대 후분양에 나섰다. 스타벅스, 키즈네스키에 엔티엔스프레쏘 등이 영업 중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선임대 후 입점해 있는 업종과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현재 영업 중인 업체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철수했을 때의 대책도 생각해둬야 한다"며 "특히 사업 시행사의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80세 형님도 가입되는 암보험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가입연령 확대해 재출시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의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이 상품을 선보인 라이나생명은 이번에 가입 나이 등 기준을 완화해 재출시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부터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암보장개시일 후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해준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으로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illegible]만원을 보장한다.

특약 가입을 활용하면 위암, 장암, 폐암 등 특정 암과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고액 암도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면서 암으로 사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적용됐다. "무배당 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에 가입하면 보험 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이유로 사망했을 때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해준다. 단 이 특약의 가입 나이는 61세부터 75세까지다.

문의 080-951-8585·www.lina.co.kr

송년 '회' 나와! 부담 없는 한 접시 롯데마트는 다음달 1일까지 서울역점, 빅마켓 등 전국 97개 점포에서 [illegible] 제철 [illegible] 세 종류를 골라 담는 활(活) 모둠회(400g 내외·1팩)를 2만9000원에 선보인다. 25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뉴시스

웹의 바다 호령한 '…거인'

포털 '올해의 검색어'로 본 2013

현대인의 생존 불안 투영한 日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다음·구글서 1위에 뽑혀

올해 우리나라 검색어는 '진격의 거인'이 석권했다.

포털사이트가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의 검색어'는 한 해 분위기를 드러내는 상징어이기도 하다.

25일 포털 다음과 구글 코리아에 따르면 양사는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을 올해의 종합 검색어 1위로 선정했다. 포털 올해의 검색어는 1년 동안 이용자들로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유명 만화가 이사야마 하지메의 작품인 '진격의 거인'은 갑자기 나타난 식인 거인들에 맞서 인류가 싸운다는 줄거리다. 지난봄 국내에 소개된 이 만화는 '진격의 ○○'란 낯선 수식어를 유행시키며 최고의 인기를 낳았다. CJ헬로비전 티빙에서도 올해의 주문형비디오(VOD)로 '진격의 거인'을 꼽을 정도다.

업계는 '진격의 거인'이 현대인이 갖는 불안감을 잘 투영했다고 평한다. 만화 속 '거인'은 누군가에게는 실직, 경기 불황 등의 위협적인 상황으로 읽혔다. 개인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인간으로서의 생존 본능 등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긴장감 넘치는 설정이 현대인의 정곡을 찔렀다는 분석이다. '진격의 거인' 인기는 척박한 사회상의 거울이기도 됐다.

◆ 어두운 키워드 상위권

올해의 검색어에는 유난히 어두운 키워드가 많았다. 다음의 올해의 검색어 인물 부문 2위는 성폭행 사건의 박시후. 구글 코리아의 인기검색어 4위와 5위는 각각 박시후와 해외 순방 중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윤창중이었다. 다음의 올해의 검색어 영화 부문 1위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꼽혔고 이 밖에 '설국열차',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상위권에 올랐다. 모두 어둡고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그린 작품류이다.

한편 지난해 다음과 구글 코리아의 종합 검색어 1위는 '강남스타일'이었다.

지난해 싸이의 신나는 말춤에 전국이 들썩거렸다면 올해는 '진격의 거인'을 보며 인간으로서의 원초적 공포를 간접 경험한 셈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거리로 나온 밥퍼운동본부 '성탄절은 나눔절' 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다일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주최의 거리성탄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방한용 옷과 도시락 등이 담긴 물품을 받고 있다. /뉴시스

KT, 바다서도 '2배 빠른 LTE'

제주항로 여객선박 대상 이통업계 최고 품질 확보

KT는 동해안에 이어 남해안에서도 LTE 속도가 2배 향상돼 전 해상 품질이 통신 3사 중에서 독보적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KT는 고객 중심의 음성·데이터·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륙에서 제주를 항해하는 7개 항로의 12개 정기여객선을 대상으로 2배 빠른 LTE를 상용 구축하고, 품질 최적화를 통해 고객의 체감 품질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내륙과 제주 간 주요 항로는 목포·해남·완도·고흥·장흥·부산 등 총 7개 항로에 12개의 정기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이번 해상 LTE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제주를 오가는 KT 관광객과 주민들이 빠른 속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KT 직원들이 제주행 1개 항로 여객선에서 본격적으로 2배 빠른 LTE 서비스 제공을 기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KT 제공

KT는 5개월간 선주들과 LTE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협의한 끝에 여객선마다 LTE 기지국과 해상 전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데 성공, LTE 다운로드 속도를 기존 대비 62% 이상 개선하고 전송 성공률도 최대 90%까지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완도에서 제주 간 여객선 내에서 KT 고객의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는 200% 이상, 해남에서 제주 간 여객선 내에서 전송 성공률은 최대 250%까지 개선시켰다고 밝혔다. /서해곤기자 [illegible]

한화그룹 '빛 발하는' 태양광 사업

한화그룹이 펼치는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 한화큐셀, 한화솔라원 등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태양광 회사들은 2013년 총 1800MW(1.8GW)의 모듈 판매를 기록하고, 태양광 발전소 준공 실적도 113MW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화큐셀은 한화그룹이 인수한 지 1년 만인 지난 9월 흑자로 전환됐고, 한화솔라원도 4분기 생산원가 하락과 매출 증대가 예측된 전망이다.

지난 16일 하와이 오아후섬에서는 한화큐셀이 건설한 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인 칼렐루아 재생에너지 파크가 준공됐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하와이에서 건설 중인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키로 한 하와이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한화큐셀이 멕시코의 대표적인 유통 체인업체인 소리아나가 2014년 말까지 멕시코 내 120개 지역에 설치하려는 총 31MW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해곤기자

노후준비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부터!

AIG 손보 '명품부모님보험' … 치매 간병비도 지급

AIG손해보험은 노년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명품부모님보험'을 성인 리에 판매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IG손보는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의료비 보장 보험이 진정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부모님보험의 경우 뇌·내장·뇌내장 시점각질환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계약으로 보장해준다.

노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치매에 대해 간병비까지 지급해준다.

중증치매로 확진 후 90일 이상 계속될 시 최초 1회에 한해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보장해준다. 연 5회 이뤄지는 치매 간병인 서비스도 선택계약으로 제공해 치매 간병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한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3대 큰 병에 대해서도 각각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보장해준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1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96만원으로 2004년 대비 2배 증가했고, 노인 진료비 총액으로는 3배가량 늘어났다.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94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AIG손보는 "병원비가 두려워 자연히 병원에 가기를 피하는 노년층이 많다"며 "하지만 진료를 미루다 오히려 더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1644-9839

/장한형기자 [illegible]

SH공사 첫 홍보대사에 가수 박일준

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창사 이래 처음 홍보대사가 가수 박일준씨로 확정돼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소재 본사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박일준씨는 다문화 가족 연예인으로 '혼혈아'라는 편견과 따가운 시선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가수라는 목표를 향해 꿋꿋이 생활해가는 이미지가 SH공사에 입주한 입주민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평가다.

또 오랜 이웃 같은 친숙한 이미지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의 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서울시 SH공사의 이미지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씨는 "SH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입주민의 문화 행복에 앞장서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밝은 웃음을 선사할 수 있어 홍보대사를 맡은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SH공사 홍보대사는 향후 1년간 ▲임대주택 홍보 ▲입주민 주민행사 ▲분양 촉진 홍보 프로모션 등 각종 홍보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한국 저성장 전환점… 신흥국 공략이 답”

책으로 살펴본 2014 경제

“내년도 경제는 과연 살아날 것인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2014년 경제를 예측하는 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직원이 새해를 앞두고 신규 발행된 엔화를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속 성장 멈추고 저성장 성숙 사회로

노무라종합연구소 2014 한국경제 대예측

노무라종합연구소 /청림출판

일본의 대표 민간 경제연구소 노무라종합연구소가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요 수출 부문인 전기·전자, 자동차, IT, 부동산, 금융, 유통 등 6개 산업 부문에 대해 내놓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우선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산업 부문에서 스마트폰은 컨버전스를 통해 혁신이 이뤄어졌던 것과 달리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분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자동차 산업은 신흥시장 중심의 시장 재편, 현실적 이슈로 대두된 친환경차, 자동차 전장화(전기·전자 장치 시스템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등의 세 가지 변화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IT 산업 부문의 경쟁은 기술적 진화보다 더 중요하게 연긴 전략적인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 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산업의 다변화, 대체 거래소 시대가 가져올 변화, 증권업계의 불황 지속 여부 등도 한국 산업이 떠안고 있는 주요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14년은 전미디로 한국이 지속 성장형에서 저성장 성숙 사회로 진입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앞으로 수년간 재정 균형보다 경기를 우선시하는 직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도, 남아공, 터키 등 신흥국에 주목해야

KOTRA 마켓 트렌드 2014

KOTRA/알키출판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러시아, 필리핀 등 신흥국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OTRA 마켓 트렌드 2014'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생생 현장 보고서다. 현지 정부기관 전문가, 기업인들과 접촉하며 파악해낸 각국의 트렌드가 소개돼 있다.

예를 들어 12억 명의 인구 대국 인도는 연평균 6~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최근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가 '가족'에서 '젊음'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이즈나 커피 체인점도 큰 인기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최근 소득 향상과 서양 문화 유입에 따라 여성들의 소비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히잡으로 얼굴을 꽁꽁 가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은 막을 수 없는 노릇인지라 특히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멕시코는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인구의 17%가 중산층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소비가 기존의 생필품 위주에서 가전, 주방용품 등 내구성 소비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美 유럽 경제 회복, 中 침체

2014 세계경제 대전망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경제신문사

미국을 비롯한 영국, 유럽 등 서구 경제가 성장세를 되찾는 반면 한국, 중국 신흥경제 도약국들은 예전 같지 않은 정체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2014 세계경제 대전망'은 미국이 에너지 호황과 은행의 청산에 힘입어 중국과 성장률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자유무역 거래 확대는 큰 성과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10대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과 50대 기업의 3분의 2를 미국 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인도와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 등 개도국들과 미국(중간선거), 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치르는 정치적 지각변동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극좌, 극우 성향에 표를 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며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 이른 감원과 젊은층의 인력 감소는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주목/이 한 줄

애프터 컴퍼니 두 개의 월급을 만드는 퇴근 후 회사

최승주·김수희/한스미디어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경제적 자유의 더 큰 관계가 싶다. 돈이 많아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에 가깝다.” 293쪽

두잡족.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꿈꿨을 희망이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능력 부족을 핑계 삼아 도전을 포기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직장을 다니면서 작은 IT 벤처회사를 운영해 성공을 거둔 저자가 진로와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30대 직장인들에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월급 대체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애프터 컴퍼니' 창업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충고한다.

저자는 도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한다. '월급쟁이 신분을 유지하라', '법인을 세우고 부자들의 방식으로 게임을 하라', '가장 값싸고 유용한 자원인 IT를 적극 활용하라'고 충고한다.

특히 사업에 자신만의 가치를 담아내라고 강조한다. 과학자를 꿈꾸는 공대생이던 저자도 결혼 전 아내가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것을 보고 육아 도우미를 중개하는 '이모넷' 사이트를 만들었다.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10년 넘게 사이트를 운영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책 속에 가득하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도전 용기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근혜기자

화제의 책

60전 61기… ‘작은거인’ 이지영의 도전과 열정

불편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이지영/알투스

취업을 준비 중인 평범한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당신의 키가 110cm라면 삼성에 지원할 수 있는가?”

아마 대다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런 조건을 지닌 채 대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는 게 두려워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 학창 시절 내내 방광염을 달고 산 소녀가 있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삼성테크윈 인사팀 이지영(사진) 대리.

뼈와 뼈 사이의 연골에 문제가 있는 '가성연골무형성증'이라는 희귀질환으로 5세 무렵 성장이 멈췄다. 어느 날 '내가 왜 못하지?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할 거라 생각이 날 못하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뒤 180도 달라졌다.

60번의 실패 뒤 61번째 노크 끝에 삼성에 입사한 그의 굴곡진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행운이다.

/박상훈기자 zen@

교황 축복 속에 빨간 양말 속 신생아도, 한여름 해변의 미녀도 "메리 크리스마스"

지구촌 최대 축제인 성탄절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특별한 성탄 풍경이 펼쳐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집전한 성탄 전야 미사에서 아기 예수 모형에 입을 맞추고 있다(왼쪽). 미국 캘리포니아주 [illegible] 메모리얼 병원 신생아실에서 23일(현지시간) 갓 태어난 아기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담는 붉은색 양말 속에 누워있다(가운데). 25일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비치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에 산타 모자를 쓴 여성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있다(오른쪽). /AP 로이터 연합뉴스

치즈·물엿으로 제설작업

폭설에 갇힌 미 위스콘신주 이색도구 눈길 – 쥐 들끓고 바퀴자국 남는 단점도

폭설로 미국 전역이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북부 지역에서는 치즈 찌꺼기가 눈길 위에 뿌려지는 등 이색 제설 작업이 한창이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는 이번 달부터 눈길 미끄럼 방지를 위해 치즈 찌꺼기와 치즈 제조 시 사용되는 소금물을 도로 등에 뿌리고 있다.

위스콘신주 당국은 눈길 미끄럼 방지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소금 구입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미국에서 치즈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지난해에는 27억 파운드(122만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치즈를 생산했다.

일반적으로 제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비식용 소금과 염화칼슘이다. 초기 효과가 좋지만 과다 사용 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신문은 지방 정부가 사용한 다양한 제설 아이디어의 단점도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에서 한 전력회사 직원이 전봇대 위에 올라가 폭설로 파손된 전선을 살펴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치즈 찌꺼기와 소금물의 경우 치즈 냄새를 맡은 쥐들이 도로로 몰려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반 소금은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 때문에 뿌린 양의 30%가량이 바로 없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소금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 시럽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엿 소재 재료를 길에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끈적끈적한 '물엿 발자국'이 집 안에 남는다는 주민들의 반발만 샀다.

일부 주에서는 사탕수수즙이나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곡물 등을 활용해 제설 작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사탕수수즙과 소금 혼합물은 트럭의 엔진을 막히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곡물과 소금을 섞어 뿌리는 방안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 곳곳은 기록적인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부 몬태나주 조던 지역은 지난 7일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떨어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성탄절 악몽 선물한 '산타 강도'

미국서 은행 털고 도주 – 佛선 미사도중 성당 붕괴

세계 각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흥겨운 파티가 벌어진 가운데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산타 강도'가 은행을 털었고, 프랑스의 한 성당에서는 성탄 전야 미사 도중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산타 복장을 한 남성이 전날 플로리다주 포트 오렌지의 선트러스트 은행에 들어와 돈을 챙겨 사라졌다.

강도는 은행 직원 앞에 분홍색 상자를 올려놓은 뒤 상자에 위험한 것이 들어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직원들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폭발물 등은 없었다.

워싱턴DC에서는 '산타 아저씨'가 장난감을 나눠주다 공기총을 맞았다. 이 남성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걸어가다가 등 쪽에 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이어졌다. 영국 런던 남부 캠버웰에서는 한 여성이 요양시설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훔쳐간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의 성당에서는 성탄 전야 미사 도중 천장 일부가 신부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다. 신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성당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조선미기자

브라질 호텔 숙박비 벌써 250% '껑충'

브라질 월드컵 개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텔 숙박비가 최대 250% 오르는 등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은 브라질호텔운영자포럼(FOHB)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 경기가 열리는 12개 도시 248개 호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숙박비가 평균 100%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북동부 바이아주 살바도르와 리우그란데두노르테주 나타우의 호텔 숙박비는 최대 250%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지난달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포르탈레자 등 4개 도시의 86개 호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숙박비가 최대 10배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관광공사(Embratur)는 월드컵 기간에 숙박비를 너무 올리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호텔들과 협의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항공료와 숙박비의 지나친 인상을 막고 서비스 고급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법정부 감시기구를 설치했다.

하지만 월드컵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바가지요금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브라질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갤노트3' 웰릿 레드 '강렬한 컬러 터치'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3 웰릿 레드 색상 출시를 기념해 지난 24일 전국 5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커드빛 강렬한 레드 컬러에 가죽의 클래식함을 더한 갤럭시 노트3 웰릿 레드는 열정적인 여성과 세련된 남성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색상으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삼성전자 제공

'파티 추억' 무선을 타고…

장소불문 흥겨움 쏘는 '무선' 오디오·스피커·외장하드 제품들 눈길

연말연시 파티에 IT 제품은 감초 역할을 해낸다.

무선 음향 기기는 파티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돋운다. 번거로운 콘센트 연결과 줄 엉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외부 모임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중이다.

삼성전자 무선 포터블 오디오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20W의 풍부한 스피커 출력, 네오디뮴 스피커, aptX 코덱을 지원해 선명한 음질을 제공한다.

LG전자 포터블 스피커 NP3530도 줄 걱정을 없앤 무선 제품으로 삼각 원통 모양의 아담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제구는 작아도 배터리 최대 충전 시 10시간까지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두 기기 모두 근거리무선통신(NFC)과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해 여러 스마트 기기와 무선 연결할 수 있다. 전용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은 리모콘처럼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파티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덴마크 프리미엄 스피커 브랜드 리브라톤은 올해 국내 진출을 하기도 했다. 리브라톤 무선 스피커는 8개 색상의 커버를 보유한 독특한 디자인 전략으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13에서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리브라톤 무선 스피커

씨게이트 아이어리스 플러스

파티에 사진이 빠질 수 없다. 최근 출시된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는 사진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 웹하드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찍은 사진을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카메라 발전과 함께 외장 하드 디스크도 향상됐다. 씨게이트 아이어리스 플러스는 1테라바이트(TB)의 저장 용량과 함께 무선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어둠 중에도 동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선 연결 없이 연람할 수 있어 파티의 추억을 편안히 간직하게 돕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곰곰 IT리뷰-삼성전자 '아티브 탭3'

이 정도면 '포터블 데스크톱'

태블릿PC+노트북 결합한 태생적 한계 털어낸 걸작 무게 543g 날씬함 남달라

노트북과 태블릿PC의 특징을 결합한 스마트 기기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이들 제품은 태블릿의 휴대성과 노트북의 기능성을 합쳤지만 어정쩡한 시장 위치로 주목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삼성 아티브 탭3는 휴전의 한계를 딛고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한 듯하다. 커버형 키보드를 연결하면 노트북처럼 사용 가능하고, 평소 태블릿처럼 액정만 들고 다닐 수도 있다. 키보드는 블루투스를 사용해 부착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윈도8을 지원해 데스크톱과 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은 기본 탑재돼 있다. 대개 터치 스크린은 일반 PC 모니터와 달리 액정 반사가 강하다. 화면에 얼굴이 비쳐서 작업 화면과 겹쳐 보이거나 정교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아티브 탭3는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면서 반사가 크지 않아 편리했다. 필압 감지 기능이 뛰어나 터치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키보드 타자감도 좋았다.

디자인은 압권이다. 얇고 깔끔하게 마감된 테두리와 은은하게 반짝이는 눈빛 색상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액정 10.1인치 두께 8.2mm, 무게 543g으로 날씬함이 남다르다.

다만 이 제품은 본체와 키보드 충전을 따로 해줘야 한다. 최대 충전 시 1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지만 배터리 팩을 휴대할 것을 권한다. 아티브 탭3 가격은 64GB 기준 80만원대.

/장윤희기자

'아이패드미니 레티나' 위한 에어쿠션

슈피겐SGP '터프아머' 케이스

슈피겐SGP(대표 김대영)는 우수한 보호 기능의 아이패드미니 레티나 '터프아머' 케이스를 26일 출시했다.

슈피겐SGP의 아이패드미니 레티나용 터프아머는 기기의 모서리 부분을 보호해주는 '에어쿠션 테크놀로지'와 충격 흡수를 위한 내부 '크로스넷 패턴', 견고한 이중 구조 설계 등 강력한 기기 보호 기능이 돋보이는 케이스다.

파손 우려가 가장 큰 4개의 모서리 부분에 에어백 역할을 해주는 '에어쿠션'을 적용해 완충 효과를 강화, 기기를 떨어뜨려도 손상을 최소화했다. 내부에는 격자 무늬의 '크로스넷' 패턴을 사용해 케이스가 충격을 흡수하고 내부 공기 순환도 원활하게 만들어줘 발열 현상을 줄여준다.

또 충격 흡수가 우수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의 케이스 위에 하드케이스를 덧씌운 이중 구조 설계로 보호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기기를 뒤집어 놓았을 때 화면에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스 테두리를 기기 전면보다 높여 디자인한 점도 특징이다. 후면에도 4개의 볼록한 리어 가드를 적용해 케이스 후면 또한 직접 바닥에 닿지 않는다. /장윤희기자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노크하세요' 지난 23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개소식'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걸으면 '공짜 데이터' 쌓아주는 헬스온

헬스커넥트가 개발한 소셜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을 위해 걷기만 해도 이동통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헬스커넥트는 액티비티 트래커(활동량 측정기)를 통해 스마트폰에 기록된 걸음 수로 데이터를 만들고 친구와 경쟁하며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를 받는 신개념 소셜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온(Health-On)'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융합형 헬스케어를 위해 설립한 합작투자회사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병원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헬스커넥트 제공

헬스온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헬스온 시안' 또는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는 헬스온 앱에 내장된 '헬스온 계도미터(활동량 측정계)'로 걸음 수를 기록한다. 기록된 걸음 수로 가까운 지인과 경쟁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측정된 신체 활동량은 '팜 포인트'로 적립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사용하거나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T 서비스'의 'T 포인트'로 전환해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헬스온 서비스는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팀과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 기획됐으며 건강 목표 권고, 건강 나이 계산, 사용자에게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바디 밸런스, 건강 다이어트, 웰빙 라이프)을 추천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

슬러거 '추신수 팬사인회'

최근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대형 계약에 성공한 추신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따르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는 내년 1월 5일 오후 1시 서울 CGV청담씨네시티 3층 엠큐브에서 추신수 팬사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슬러거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29일까지 슬러거 홈페이지(slugger.pmang.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크림 바르고 '하얀 사막' 가실게요~

겨울스키족 위한 건강수칙…강한 자외선 칼바람 속 피부보호제 필수

새하얀 설원이 눈부시게 펼쳐진 스키장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칫 방심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쌩쌩 부는 칼바람과 눈밭에 반사된 강한 자외선은 피부를 망가뜨린다. 스키장으로 출발하기 전 짐꾸러미에 꼭 챙겨가야 할 아이템을 소개한다.

여름철보다 자외선이 4배 이상 강해 '하얀 사막'이라고 불리는 스키장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한다. 또한 칼바람과 건조한 공기는 피부를 메마르게 하는 주범이다. 슬로프에 오르기 전 무엇보다 피부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

아토팜의 '아토팜 인텐시브 케어 컨테늄 로션'과 '컨테늄 크림'은 건강한 피부 지질 구조와 유사한 독특한 보습 성분과 세라마이드를 함유해 피부에 보습 보호막을 형성한다.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 수축돼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상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운동 전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운동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나 관리 제품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다.

전문 스포츠케어 브랜드 미션 머슬케어의 'M-아토팜 릭스 엑서사이즈 코칭 스프레이'와 '코칭 젤'은 부상당한 근육 및 관절 부위에 대고 마사지하듯 바르거나 뿌리면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활강 후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그는 때감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증 등이 생길 수 있다.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피부의 긴장을 풀어준 뒤 보습용 보디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더마비의 '데일리 모이스처 보디로션'과 '보디 크림'은 셰어버터 등 보습 성분에 특허받은 네오캄 MLE 포뮬러가 거칠어진 보디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파라벤, 에탄올 등 피부 유해 성분을 배제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박지원기자 @metroseoul.co.kr

손상모발 케어 도브 샘플 5000만개 쏜다 유니레버코리아(주) 도브가 손상모발 케어 전문 브랜드로 새롭게 전 제품을 리뉴얼하며 '5000만 대국민 샘플링'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명동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행사 론칭 '도브 리페어 클리닉'에서는 머릿결 손상도를 측정해 맞춤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모발 자가 진단 서비스와 함께 스타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존이 구성돼 고객들의 열띤 참여를 이끌어냈다. 새로워진 도브 헤어 라뉴얼 신제품 9개 전 라인은 자사 제품 대비 2배 강화된 성분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성분이 들어간 2 in 1 린스로 손상부터 머리 끝 갈라짐까지 전용 관리해 머릿결을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제품이다. 제품 문의 080)041-7100·www.facebook.com/DoveKorea·www.dove.co.kr /유니레버코리아 제공

눈길에도 광나는 '그의 워킹'

男 구두 소재별 관리요령

멋쟁이 남성들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고급 클래식 슈즈는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손질을 해줘야 한다. 특히 겨울철 눈과 비에 손상된 구두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밑창이 가죽으로 된 구두는 슈트리를 끼워 구겨진 가죽을 펴고, 밑창 전용 오일과 크림을 발라 가죽에 영양을 공급한다. 그다음 촘촘한 말털 브러시로 먼지를 털어내고 크림 리무버를 사용해 표면에 묻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브러시로 크림을 고르게 펴 바르고 천으로 남은 크림을 닦아낸다. 끝으로 물과 왁스를 원을 그리듯 펴 발라 광을 낸다.

스웨이드 구두에 심한 얼룩이 묻었을 땐 스웨이드 전용 샴푸로 씻어야 한다. 약품과 물을 1대 1 비율로 섞어 약솜에 묻혀 구두에 고르게 바르고, 거품을 내 얼룩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지른다. 젖은 수건으로 거품을 닦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애고 나서 슈트리에 끼워 그늘에서 말린다. 미지막으로 스웨이드 브러시로 빗질을 해주면 된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일반 소가죽 구두는 먼지를 털어낸 뒤 크림으로 닦고 광을 내야 하고, 스웨이드 구두는 솔질만 잘해도 기본적인 손질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강강술래 외식하고 '4만원' 받아볼까

서초·홍대 등 5개점 행사 결제액 따라 상품권 지급

의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 소중한 이들과 함께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송년 고객감사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31일까지 역삼과 서초, 여의도, 홍대, 고양, 늘봄농원점에서는 결제 금액에 따라 강강술래 상품권(1만원)을 최대 4매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매장별 문의).

주말에 서초와 여의도점은 왕양념갈비·한우모둠구이·한우곰양불고기 메뉴를, 역삼점은 왕양념갈비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준다. 특히 서초점은 가족 고객에 구이메뉴를 시키면 테이블당 냉면(2그릇)을 서비스로 주며, 65세 이상 손님 동행 시 어리굴젓 1통(500g)도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sam 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건강식품 할인행사도 벌인다.

방부제 색소 조미료 등을 일체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500㎖·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250㎖·5팩·10인분) 2만2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50g·6봉) 2만5900원 등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대용량 곰탕(3팩)과 우리쌀 떡국(1kg)으로 구성된 한우떡국세트A는 3만1000원, 소용량 곰탕(3팩)과 우리쌀 떡국(1kg)으로 구성된 한우떡국세트B는 2만1000원에 최대 47%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송년세트(한우불고기 500g+술래양념 520g+한돈양념 500g+5지양념 500g)는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하며, 칠정한우떡갈비(3세트 1.08kg 4만2000원)와 족입자한돈너비아니(3세트 1.08kg 2만5200원)는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송병길기자

JAL 칸쿤행 비즈니스 특가

일본항공이 최근 한국인 허니무너들에게 지명도가 높아진 멕시코 칸쿤행의 새로운 수요에 맞춰 비즈니스 클래스 특가를 설정했다.

특가 항공권의 판매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며 출발 기간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또 시즌에 관계없이 운임은 300만원으로 동일하며 유류할증료 등 제세금 총액 51만원 정도가 추가돼 운임 총액은 1인당 351만원 전후가 될 예정이다.

한-일 구간은 JL운항편, 태평양 횡단 구간은 JL편을 이용하게 되며 미주 내에서 아메리칸항공(AA)을 이용하게 된다. 문의 02)757-1711

숙취해소제 '굿모닝 리버 '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티파웨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케어가 잦은 술자리로 간 건강을 해치기 쉬운 연말을 맞아 '굿모닝 리버 365 플러스'를 추천한다.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굿모닝 리버 365 플러스는 간 기능 개선 및 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회사는 12주 동안의 간 기능 시험 결과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이 간수치 개선, 간세포 생존율 증가, 단백질 합성 증가, 간 성상세포 섬유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080)023-4811

르네상스서울 뷔페 특선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연말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에서 한 해 동안 진행된 프로모션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메뉴와 연말 기념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엘리제는 한 해 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모션 메뉴들을 엄선해 뷔페 석선에서 제공하고 셰프가 직접 로스트 비프를 썰어주는 '라이브 카빙 스테이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은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해 점심 7만원, 저녁 7만4000원이며 주말에는 저녁 2부제가 운영된다. 문의 02)2222-8635

설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엄마, 나 러시앤캐시 합격했어
우리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
은행이나 카드회사랑 하는 일은 비슷해
대신, 이자가 비싼 만큼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야
아직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다녀보니까 좀 좋아지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해보려구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발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게요!

우리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서비스

역시! Rush & Cash 1566-7979

해장도 '인스턴트' 시대

컵국밥·착즙주스 등 눈길

최근 모임에서 음주 분위기 많이 가벼워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설 틈 없이 연일 술자리가 이어지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숙취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숙취 해소 하면 가장 먼저 얼큰한 해장국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인데 간편식 컵국밥부터 상큼한 과일음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집에서 간단히 숙취를 해소할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이 최근 출시한 큰 사이즈의 '얼큰육개장국밥'은 진한 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매운 홍고추로 맛을 더해 시원한 맛으로 숙취해소를 원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신송식품도 끓는 물을 부어 먹는 '즉석국밥'을 판매하고 있다.

숙취해소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헛개 음료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며, 숙취에 의한 갈증을 줄여준다. 대상웰라이프 녹즙은 '헛개나무 열매 즙'을 판매 중이다. 국산 토종 헛개나무와 열매를 사용했으며, 오리나무, 오미자, 복분자 등을 함께 들였다. 광동제약도 힘찬비두 '헛개차', 롯데칠성음료도 '오늘의차 아침헛개' 등 헛개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과일주스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과일은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해 탈수와 숙취 해소에 좋다. 특히 과일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동안 소비되는 비타민 C를 보충해줘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매일유업이 출시한 '플로리다 내추럴'은 생오렌지 상자몽을 비로 짠 착즙 주스로 비타민이 풍부해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는다. 롯데칠성음료 '한라봉과 유자레몬', 웅진식품 '내사랑 유자C', 해태음료 '썬키스트 허니유자' 등은 꿀 유자 등이 함유돼 있어 좋다.

/정혜인기자 jhi@metroseoul.co.kr

'으쌰으쌰' 다음날의 선택

송년회식 시즌 숙취해소음료 신제품 출시 붐

일 년 중 가장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숙취해소음료 시장의 경쟁이 뜨겁다. 기존에는 '헛개컨디션', '여명808', '모닝케어' 등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는 속속 출시되고 있는 신제품 덕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제품들은 새로운 원료와 음용법, 여성 소비자 공략 등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존 숙취해소음료의 고정관념을 깨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기존 '헛개나무 열매' 원료에서 벗어나 '마름' 관련 특허를 활용한 숙취해소음료 '술깨는 비밀'을 최근 출시했다. 마름은 연못이나 물 위에 뜬 채 자라는 한해살이 풀의 열매로 포도당,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숙취 해소와 항암 효과, 위 기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과 L-아스파라긴 등을 사용해 숙취와 취기를 유발하는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를 동시에 분해한다. 또 연꽃씨, 다우린, 아미노산을 추가해 음주 후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100㎖ 한 병에는 양상추 반 포기 분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돼 자몽 과즙으로 부드러운 음용감을 더해 여성들이 마시기에도 좋다.

CJ제일제당은 남성 소비자 위주의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여성 소비자를 공략한 숙취해소음료 '컨디션 레이디'를 출시했다. 기존 헛개컨디션의 주요 성분은 유지하고 여성에게 좋은 성분을 더했다.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 등 헛개컨디션의 주요 성분과 함께 피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과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지방간을 개선하는 베타인 성분도 함유됐다.

한국야쿠르트는 알약과 액상 형태를 결합한 이중 복합 제형의 숙취해소음료 '쿠퍼스 프리미엄'을 선보이고 있다. 알약 형태의 밀크시슬과 액상 형태의 헛개나무를 한 병에 담아 알코올성 간 손상 예방과 활성산소 간 건강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밀크시슬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에 서식하는 국화과 식물인 엉겅퀴 풀의 일종으로 간세포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혜인기자 jhi@metroseoul.co.kr

'뜨는 맛' 코코넛, 알랑가몰라

외식업계 신메뉴로 인기

코코넛의 열매를 감싸고 있는 섬유층은 카펫이나 자리 시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며, 단단한 껍데기는 생활용품의 재료로 쓰일 만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열대과일 코코넛은 이미 동남아 요리에서는 주재료로 쓰인다. 매우 유용한 과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아직은 낯선 코코넛이 음겨울 음료와 디저트로 다양하게 변신했다.

코코넛은 즙이 많아 보통 음료로 만들어지는데, 코코넛 즙에는 칼륨이 풍부해 겨울철 움츠러든 몸에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근육경련 방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겨울철 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망고&코코넛은 최근 인기 드라마 '상속자들'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는 망고식스의 대표 메뉴로 망고주스 위에 코코넛밀크를 얹은 음료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최근 겨울 한정 메뉴 랍스테이크를 출시하면서 본격 겨울 시즌 프로모션에 들어갔다. 이번 겨울 한정 메뉴에는 그동안 따로 출시하지 않았던 음료 메뉴 '코코넛 그로브'를 시즌 음료로 선보였다. 이 상품은 '코코넛 과수원'이라는 뜻으로 럼과 바나나 리큐르에 열대과일을 대표하는 코코넛, 파인애플 주스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칵테일 음료다. 아웃백의 겨울 한정 메뉴 랍스테이크 세트 메뉴에 제공되는 에이드에 1100원을 추가하면 '코코넛 그로브'로 교환할 수 있다. 코코넛 그로브 단품은 7150원이다.

미국의 코코넛워터 브랜드 '비타코코 코코넛워터'는 설탕 등 인공첨가물을 담지 않고 신선한 그린코코넛에서 얻은 코코넛워터를 그대로 담았다. 코코넛워터는 5대 영양소와 전해질 등 풍부하게 함유해 칼륨 함량이 높아 운동 후 피로 해소와 근육의 이완, 정상 혈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마노핀도 화이트 코코넛 눈꽃 카카오, 캔디케인 벨벳 튜듀프 벨벳 등의 제품을 새로 출시했다. '화이트 코코넛 과 눈꽃 카카오'는 100% 코코넛파우더를 넣어 반죽한 케이크 위에 크림치즈를 얹어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이다.

/정혜인기자

홈플러스 디지털 상품권 "원하는 덕담 새겨드려요" 홈플러스는 2014년 갑오년을 맞아 출시된 말띠 해 디지털 상품권을 선보인다. 이 상품권은 선물용과 소장용 두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복주머니 제작지형 디지털 상품권은 복주머니 모양의 인쇄감과 디지털 상품권이 하나로 된 것으로 설 분위기와 주게 받는 이에게 새해 메시지를 같이 적어 보낼 수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디지털 상품권 20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추가 증정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디지털 상품권은 사용 금액 소진 후 홈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재충전이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 사진, 덕담을 넣어 맞춤형으로 제작도 가능하다. /홈플러스 제공

이대병원 '대장암·유방암·심근경색' 1등급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 3개 분야에서 최고 인증

이대목동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의료기관 대장암, 유방암,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 우선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전문인력 구성 여부와 검사 및 교육 영역, 수술 영역 등의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대목동병원은 평가를 받은 병원 전체 평균(89.97점)과 상급종합병원 평균(96.23점)보다 높은 99.64점을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대장암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또 급성 심근경색증 평가에서도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의 9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심평원이 올해 처음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유방암 부문에서도 이대목동병원은 1등급을 획득하며 여성암 분야의 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에 대해 160개 기관 4574건을 대상으로 구조(인력), 진료 과정, 치료 결과 3개 영역의 20개 부문에 대한 유방암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대목동병원은 99.82점을 받으며 병원 전체 평균(95.08점), 상급종합병원 평균(98.43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이 각 센터별 특성화 전략을 통해 중증질환에 관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최근 정부기관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등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증질환에 대한 역량을 더욱 강화해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외강내약' 효신 캐릭터 저랑 닮았죠

드라마 '상속자들'로 단박에 스타덤 오른 강·하·늘

강하늘(24)은 욕심보다는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는 배우였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이하 '상속자들')에서 이효신 역을 맡아 튀지 않으면서 김탄(이민호)과 최영도(김우빈), 유라헬(김지원)의 갈등을 완급 조절해주며 절제된 연기를 펼쳤다. 실제 성격도 효신과 비슷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보다 꿈을 찾아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잊지 못할 추억 '상속자들'

연극을 전공하고 2006년 뮤지컬 '천상시계'로 데뷔해 '쓰릴미' '스프링어웨이크닝' '블러디브라더스' 등 꾸준히 공연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상속자들'에 출연하기 전까지 말이다. 강하늘은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드물었다"며 "드라마 출연 후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효신이 아니냐?'라고 알아보더라. '이게 상속자들 효과인가요?'"라며 해맑게 웃었다.

'상속자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린 강하늘이 촬영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촬영 전에는 매우 불안했어요. 이민호·박신혜·김우빈·박형식 등 출연 배우들부터 화려했고, 그 사이에 제가 왜 들어갔는지 적응 못 하고 겉돌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어떻게 친해져야 하지' 걱정하는데 민호 형부터 시작해 모든 배우가 다 저게 먼저 인사해 주고 말 걸어 주고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작품에 대한 애착이 더욱 생겼죠."

이 때문일까.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08학번 동기인 박신혜와 작품을 하면서 오히려 거리감을 뒀다. 그는 "김범·고아라·김소은·박신혜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기다"며 "함께 작품에 출연했으면 했는데 신혜와 '상속자들'에서 만나 무척 기뻤다. 그런데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 촬영 중에는 말을 안 걸었다"고 털어놨다.

> '절친' 박신혜에 짐될라 촬영중 말도 안 걸었다
> 짝사랑 과외쌤 이상형 연말 나홀로 여행 꿈꿔 ”

◆애착 가는 캐릭터 효신

이효신은 극중 검찰총장의 아들이자 제국고의 학생회장으로 겉은 카리스마 있지만 내면은 연약한 인물이다. 강인함 뒤 슬픔이 깃든 눈빛을 강하늘은 절묘하게 표현해냈다.

"고3이 겪는 꿈에 대한 열망과 부모님과의 갈등, 이성적인 사랑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드라마는 상위 2%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지만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질투·갈등·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 면을 효신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기 효신처럼 힘들어도 내색을 잘 하지 않는데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동질감까지 느껴졌죠."

부모와의 갈등 이외에도 효신은 과외 선생 전현주(임주은)를 짝사랑하고, 유라헬(김지원)과는 풋풋한 사랑을 경험한다. 그의 실제 이상형은 전현주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여자(전현주)가 이상형이다"며 "라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만 연인보다는 친구로 조언해주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쉼 없이 달려온 1년

그는 올 한 해 드라마 4편('몬스타' '투윅스' '드라마 페스티벌-눈은' '상속자들'), 뮤지컬 1편('어쌔신')에 출연하는 등 데뷔 후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움도 남는 한 해였다.

그는 "뮤지컬보다 드라마 활동이 많았다. 류정한·정상훈 선배 등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는데 뭔지 모를 거리감이 생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뮤지컬 무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농담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슬프기까지 했다"고 입을 열었다.

올 연말 홀로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고 싶다는 그는 "2014년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다 겪으며 살아가도 나의 연기관과 예술관, 신념을 지키며 살고 싶다"며 "시작과 같은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에서 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장성주기자 ysw@metroseoul.co.kr

star bag

'으르렁' 빌보드 최고의 K-팝

그룹 엑소의 히트곡 '으르렁'이 빌보드의 2013 최고의 K-팝 곡으로 선정됐다.

25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빌보드는 K-팝 칼럼 코너 '케이타운'에 발표한 '20 베스트 K-팝 송즈 오브 2013'에서 '으르렁'을 1위로 꼽았다. 빌보드는 "'으르렁'은 흔치 않는 남부 힙합 비트를 사용해 멤버들의 재능을 빛나게 했다"고 평가했다.

'코코 슈퍼콘서트' 28일 개최

개그맨 김준호가 이끄는 코코엔터테인먼트가 28일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 제1체육관에서 '2013 코코 슈퍼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2013 KBS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한 개그맨 김준호를 비롯해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김준현·김지민, 유민상, 김민경 등 KBS 개그콘서트의 주역들이 대거 출연한다. 공연은 28일 두 차례 열린다.

3년만에 '텅 빈 방'으로 컴백

엠넷 '슈퍼스타K' 출신 가수 길학미가 3년 만에 컴백한다.

길학미는 27일 디지털 싱글 '텅 빈 방'을 발표한다. 2010년 3월 데뷔 앨범 '슈퍼 솔'과 같은 해 12월 싱글 '겨울이야기'를 발표한 이후로 공백기를 보냈다. '텅 빈 방'은 프로듀싱팀 에이스캠프와 신예 작곡가 6B가 함께 작업한 곡으로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느낀 감정을 모티브로 했다.

다큐 DVD '캐치미' 내일 출시

동방신기가 다큐멘터리 DVD 'TVXQ! 캐치 미-프로덕션 노트'를 27일 출시한다.

2장으로 구성된 이번 DVD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동방신기 정규 6집 '캐치 미'의 녹음 현장, 안무 연습, 뮤직비디오 촬영, 컴백 무대 등 앨범 제작 과정과 활동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 팬들이 궁금해하는 동방신기의 진솔한 생각과 모습을 만날 수 있다.

12월은 ★들 '공개열애의 계절'

김범·배용준·최원영 등 줄줄이 교제사실 밝혀

예년보다 포근해진 겨울만큼 스타들의 핑크빛 열애 소식이 연말 연예가를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배우 문근영과 김범의 열애 소식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10월 종영한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를 통해 만나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고, 작품 종영 후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다. 열애 사실을 인정한 이들은 최근 유럽 여행 귀국길에서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tvN '응답하라 1994'의 정우도 김유미와 열애 사실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한류스타 배용준의 열애 소식은 국내는 물론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3일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배용준은 현재 14세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3개월째 교제 중이다. 특히 이 여성은 국내 유명 기업인의 딸이자 빼어난 미모를 갖춘 재원으로 알려져 많은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 측은 "이제 시작하는 연인 단계로 결혼 등을 언급할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인기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배우 최원영도 심이영과 열애 사실을 밝혔다. 24일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드라마 '백년의 유산'을 통해 연인을 맺고 6개월째 열애 중임을 인정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영화관을 찾거나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등 여느 연인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정만식은 한 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4년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는다. 정만식은 28일 오후 1시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을 치른다. 예비 신부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배우로 두 사람은 4년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내년 1월 정만식이 출연한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개봉 후 2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나며 신접살림은 경기도 일산에 마련한다.

/유순호기자 yoo@metroseoul.co.kr

연말을 맞아 잇따라 교제 사실을 밝힌 배용준, 최원영, 김범(왼쪽부터)

세계미인 대결…나나 앞에 한명

佛 코티아르 이어 2위

애프터스쿨의 나나(사진)가 미국 유명 영화 사이트인 TC 캔들러가 선정한 '2013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에서 2위로 뽑혔다.

25일 소속사 플레디스에 따르면 나나는 1위를 차지한 프랑스의 마리옹 코티아르, 미국의 클로이 머레츠, 영국의 엠마 왓슨 등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플레디스는 "1999년 이후 저유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선정됐다. 내년에는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TC 캔들러 측의 반응을 전했다.

올해 리스트에는 소녀시대의 태연이 9위, 미쓰에이의 수지가 14위, 소녀시대의 제시카가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제시카가 5위, 2011년에는 송혜교가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나나는 다음달 29일 출시될 애프터스쿨의 일본 여섯 번째 싱글 작업과 프로모션을 위해 일본을 오가고 있다. 또 연말 시상식 무대를 준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김준수·김소현 듀엣무대

김준수(사진 왼쪽)가 연말 콘서트에서 뮤지컬 스타 김소현(오른쪽)과 듀엣 무대를 꾸민다.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죽음과 엘리자벳 역을 각각 맡아 호흡을 맞췄던 김준수와 김소현은 30~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3 시아 발라드&뮤지컬 콘서트 위드 오케스트라 Vol.2'에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한다.

이들은 '모차르트!'의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가 있어', '디셈버'의 '스치다' 등 뮤지컬 넘버를 함께 부른다. 또 김소현은 '엘리자벳'의 대표곡인 '나는 나만의 것'을 솔로로 부른다. 김소현은 김준수와 함께 출연한 '엘리자벳'을 비롯해 '지킬 앤 하이드', '오페라의 유령' 등 유명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이들간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 티켓 1만3000장은 예매 시작 15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유순호기자

걸스데이 일본팬 1000명과 'X-마스 이브의 추억'

걸스데이가 1000여 명의 일본 팬들과 크리스마스이브를 함께 했다.

이들은 24일 지바현에 위치한 클럽 지타에서 크리스마스 카스라는 이름의 팬미팅을 개최했다. '반짝반짝' '기대해' '여자대통령' 등 히트곡을 불렀고 '빵빵춤'과 '곰반죤들가출' 등 안무를 지도하며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찾아와준 수십여 명의 한국 팬과 1000여 명의 일본 팬이 2시간 동안 자리에 앉지도 않고 걸스데이와 노래 등 게임을 즐겼다"며 "걸스데이 멤버들과 팬들은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이브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걸스데이는 내년 1월 3일 6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유순호기자

'엔더스 게임' 캐스팅만 봐도 두근두근

훈남 버터필드·베테랑 포드 등 환상호흡…31일 관객맞이

올해 마지막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인 '엔더스 게임'(31일 개봉)이 아카데미를 빛낸 명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휴고'로 단번에 할리우드를 빛낸 신성으로 떠오른 아사 버터필드는 이번 영화에서 주인으로 발돋움했다. 뽀얀 피부와 푸른 눈동자로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는 어느새 훤칠한 키의 훈남 배우가 돼 돌아왔다. 지구의 운명을 짊어진 마지막 영웅 엔더 역을 맡은 그는 평범한 소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능숙하게 소화했다.

연기 경력 40년의 베테랑 배우 해리슨 포드(작은 사진)는 엔더를 강인한 지휘관으로 키워내는 우주함대 책임자 그라프 대령으로 출연했다.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포드는 특유의 묵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을 보이며 아사 버터필드와 세대를 뛰어넘는 환상의 호흡을 맞췄다.

매번 상상을 초월하는 연기 변신으로 영화 팬들의 신뢰를 받는 벤 킹즐리는 인류의 멸망을 막아낸 전설적인 영웅 메이저 래컴 역을 맡았다. 이번 영화에서 얼굴 전체에 가파르적인 문양을 새긴 모습으로 시선을 압도한다.

'밀크'로 지난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됐던 비올라 데이비스는 우주함대 소속 사령관들의 심리 분석을 책임지는 앤더슨 소령을 연기했다.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로 등장해 지금까지 연기한 어떤 캐릭터보다 섬세하고 절제된 연기력을 선보인다.

'더 브레이브'로 어린 나이에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됐던 헤일리 스테인펠드는 우주함대의 전투함 조종 전문가이자 엔더와 함께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는 페트라 역을 맡았다. 소녀 이미지를 벗고 성숙한 미모로 돌아온 스테인펠드는 특유의 소탈한 매력을 뽐내며 남성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변호인' '용의자' 2강 레이스

나란히 1·2위 흥행 질주

'변호인'(사진 위)이 질주하고 '용의자'(아래)가 뒤쫓는 2강 레이스가 연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변호인'은 24일 하루에만 44만6754명을 동원했고 25일 오후 3시16분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3일 만에 100만 명, 5일 만에 200만 명, 7일 만에 300만 명을 불러모은 '변호인'은 2주 연속 예매율 1위를 자지하며 흥행 질주를 하고 있다.

또 크리스마스이브 역대 한국 영화 최다 관객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마이웨이'(2011년)의 33만106명이었다.

'변호인'은 실제 영화를 본 관객들만 평점을 남길 수 있는 극장 사이트 CGV에서 평점 9.8점, 롯데시네마 9.7점, 메가박스 9.69점을 기록했다.

공유가 처음 액션에 도전한 '용의자'는 24일 개봉 첫날 33만3813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이날 기록은 한국 액션영화 최고 흥행작인 '베를린'(716만 명)의 오프닝 스코어(27만3644명)를 뛰어넘는 성적이다. /유순호기자

칸·베를린영화제 명작 온다

새해 '오직 사랑하는…' 등 줄줄이 개봉

올해 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를 수놓은 명작들이 새해 벽두에 줄줄이 개봉된다.

미국 인디 영화계의 거장 짐 자무시 감독이 4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는 다음달 9일 관객과 만난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로 거론된 이 영화는 수세기 동안 사랑을 이어온 뱀파이어 아담과 이브의 특별한 러브스토리다. '설국열차'에 출연한 틸다 스윈턴과 '토르'의 톰 히들스턴이 뱀파이어 커플로 완벽 변신했다.

16일에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개봉된다. 평범한 소녀 아델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파란 머리 소녀 엠마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을 느끼며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 레아 세이두와 이번 작품으로 전 세계 영화 팬의 주목을 받은 아델 엑사르코풀로스의 섬세하면서도 파격적인 연기가 펼쳐진다.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백일을 쓴 소녀'(위부터)

가족들의 강요로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된 한 소녀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백일을 쓴 소녀'는 23일 개봉된다.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후보에 올랐던 이 영화는 1796년 출판된 후 금서가 됐던 드니 디드로의 문제작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이자벨 위페르, 폴린 에티엔, 마르티나 게데크, 루이즈 보르고앙 등 유럽을 대표하는 여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인다.

29일 개봉하는 '인사이드 르윈'은 코엔 형제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작인 이 영화는 가진 것이라고는 기타 하나, 고양이 한 마리뿐인 무일푼 뮤지션의 7일간의 여정을 그린다. 오스카 아이작, 캐리 멀리건,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호연과 감미로운 노래가 매력적인 영화다. /유순호기자

한효주 '… 사랑과 마법' 캐스팅

배우 한효주(사진)가 일본 영화 '미라클 데비쿠로 군의 사랑과 마법'에 캐스팅됐다.

'미라클…'은 일본 톱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 아이바 마사키가 첫 주연을 맡아 축제를 오오는 작품이다. 야마시타 타츠로의 명곡 '크리스마스 이브'를 모티브로 한 소설인 나카무라 와타루의 '100번 울 것'을 영화화한 러브스토리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메종드히미코' 등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이누도 잇신 감독이 연출한다.

세계적인 한국인 조명 디자이너 역을 맡은 한효주는 "이누도 잇신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했다. 그의 팬으로서 함께 작품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화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순수하면서도 어른스러운 양면성이 공존하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영화에는 마사키 외에도 톱 모델 출신의 유명 여배우 에이쿠라 나나, 드라마 '하나와 앨리스'로 큰 인기를 얻은 야쿠타 토마 등이 출연한다. 다음달 촬영을 시작해 내년 가을 일본 전역에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꽃누나도 '승기보다 앱'

해외여행 출발 전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미뤄뒀던 연간 휴가 등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TV를 통해 배낭여행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배낭여행 중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의사소통을 비롯해 위치 찾기와 맛집 검색 등일 것이다. 하지만 출발 전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면 편안한 여행에 도움을 준다.

◆한식당 가이드 '코리아 레스토랑 가이드' 앱

한식재단에서 기존에 출시한 일본·프랑스·영국·독일 등 서유럽 11개 국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의 한식당을 소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어 한류 1번지 중국 내 한식당 앱을 새롭게 출시했다. 중국의 베이징·상하이·칭다오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엄선된 40여 곳의 한식당 정보를 골라 담았다. 대표 메뉴와 1인당 예산, 테이크아웃과 와이파이 사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길 찾기, 환율 변환 등의 기능도 탑재돼 있다. 상하이 편은 현재 운영 중이며 칭다오·북경 편은 오는 31일 오픈 예정이다.

◆처음 찾아가는 도시, '지도' 앱이 필수

해외 배낭여행에서 지도 앱인 '트립 어드바이저(trip advisor)'를 미리 다운받아 가면 데이터 로밍 없이도 사용 가능하고 세세한 골목길까지 알려줘서 골목에 숨은 맛집까지 찾을 수 있다. 지하철 위치·지하철 전체 맵을 볼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저장한 후 그 목록을 지도 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록 소도시들은 없기도 하고 100m로 접근하면 근처에 있다는 위치가 안 잡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데이터를 쓰지 않고 정보를 볼 수 있어 좋다.

◆세계 환율 검색을 쉽고 간편하게

환율 앱 '엑스이 커런시(xe Currency)'는 XE커런시라는 사이트에서 환율 정보를 스마트폰 환경에서 보기 쉽게 앱으로 만든 것이다. 화면 구성이 심플해서 복잡한 환율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총 180여 개국의 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쇼핑이나 맛집에서 정확한 가격이 궁금할 때 사용하면 1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되는 환율에 따른 환전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윤정원기자 jwon@metroseoul.co.kr

설 연휴 '쇼핑 비행' 홍콩·방콕 기다려!

한국인 항공예약률 분석 세일 많은 두 곳 1·2위에

갑오년 첫 연휴인 설을 맞아 한국인 여행객들이 대규모 쇼핑 관광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의 설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인 여행객의 항공권 예약률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대규모 세일을 진행하는 홍콩과 방콕에 예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홍콩은 크리스마스부터 설날 연휴까지 예가 세일을 지속해 한국인 지속 여행객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 4위에 간신히 턱걸이했던 홍콩은 원화 강세, 간편한 자동 출입국심사, 그리고 명품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삼박자가 어우러졌다. 게다가 이에 발맞춰 최근 홍콩관광청과 캐세이퍼시픽이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홍콩투어, 마일리지 추가 적립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홍콩에 이어 2위에 오른 방콕도 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인 쇼핑객들로 가득 찰 전망이다. 설 연휴인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타일랜드 스펙타큘러 이어 엔드' 캠페인을 이용하면 주요 백화점에서 대규모 연말 세일은 물론, 선물 바구니와 숙박 패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캠페인 기간 동안 참여 호텔, 레스토랑, 관광지, 백화점 등에서 5000바트 이상 지출한 영수증을 방콕 스완나품 및 돈무앙공항에 마련된 비자카드 부스에 제시하면 추가 선물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 설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인 자유 여행객이 찾은 해외 여행지 1위와 2위에 올랐던 도쿄와 마닐라는 각각 방사능과 태풍의 여파로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황재용기자 hsoul38@

동장군이랑 친구 먹는 '아이스 파티'

'포천 백운계곡 ' 축제 28일 신나는 겨울 개막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지만 추운 겨울을 가장 '핫'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겨울 축제다.

그중 '쌍쌍 아이스 파티(ICE PARTY)'라는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 일원에서 열리는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겨울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양한 겨울 놀이를 통한 색다른 추억을 선물하는데 우선 행사장 입구부터 설치된 최고 작은 얼음 기둥과 함께 얼음 기둥 작품 전시가 열린다. 또 동장군 소원당, 얼음조각 작품 전시 등이 준비되며 얼음 성곽으로 둘러싸인 행사장에서 토끼를 몰아서 잡는 눈동산 토끼몰이와 얼음동굴 미로 체험, 어글루 체험, 얼음 미끄럼틀 타기, 계곡 눈썰매장 등은 겨울만이 줄 수 있는 재미를 더한다.

특히 폭신한 눈으로 뒤덮인 설원에서 눈을 뭉쳐 던지는 눈싸움과 눈 뭉쳐 던지기 대회, 눈썰매 끌어주기 등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안겨준다. 여기에 야생 반합라면 체험, 전통 썰매 체험장, 어린이 얼음낚시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되며 추억의 도시락, 어묵 돼지고기 구워 먹기, 가마솥 배추된장국밥, 동지팥죽, 막걸리 주막 등 포천지역의 매력을 살펴볼 수 있는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갓 잡은 송어를 즉석에서 회나 구이, 찜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송어 얼음낚시는 빼놓을 수 없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이외에도 통나무 자르기, 장작 패기, 지게 지기, 전통 방패연 만들기, 전통 활 만들기, 나무 기념품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황재용기자

뉴스 & 뉴스

익스피디아 20개 도시 호텔상품 최대 50% 할인

●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내년 1월 29일까지 '연말연시 특가전'을 진행한다.

특가전은 홍콩, 타이베이, 세부, 도쿄, 시드니 등 한국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주요 여행지 20개 도시의 호텔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로 익스피디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호텔을 예약하면 된다.

할인 상품의 숙박 가능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델피노 리조트 겨울축제 '스노우 원더랜드' 개막

●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노우 원더랜드'를 개최한다.

스노우 원더랜드는 눈을 테마로 한 델피노만의 시즌 축제로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눈썰매, 얼음썰매, 스노 래프팅 등의 놀이 테마와 대형 트리, 이글루 형을 캐릭터 등으로 이뤄진 관람 테마, 겨울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음식 테마, 황토 아궁이 난로 쉼터, 미니 양목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테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에미레이트항공 A380 항공기 2대 동시 도입

● 에미레이트항공이 최근 독일 함부르크 핀켄베르더에서 43번째와 44번째 A380 항공기를 동시에 도입했다.

신규 도입된 항공기는 1등석 14좌석, 비즈니스 클래스 76좌석,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 427좌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리셔스와 뮌헨에 신규 취항하게 된다.

에미레이트항공은 내년에도 A380 항공기 13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71대의 A380 항공기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제주 성산항에 내·외국인 관광객 위한 면세점 개점

●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서귀포시 성산항에 내·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 면세점을 개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면세점은 여객선터미널 내에 매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해 133㎡ 규모로 조성됐으며, 개점 초기에는 주류와 담배·홍삼 위주로 판매 품목이 구성됐으며 추후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들어서는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다 지난 2008년 휴업에 들어갔으며 2010년부터 제주관광공사가 면세 상품을 인수받는 인도장으로 써 왔다.

2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공격에 성공한 대한항공 라이트 마이클(왼쪽)이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클 25점 맹폭' 대한항공 21개월만에 삼성화재 잡았다

대한항공이 21개월 만에 삼성화재를 잡았다.

대한항공은 2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방문경기에서 공격수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세트 스코어 3-0(25-22 25-21 29-27)으로 승리했다.

4연패에 빠진 절체절명의 상황이 '대어'를 낚는 원동력이 됐다. 대한항공은 2011~2012시즌 6라운드 최종전(2012년 3월 1일)을 끝으로 한 번도 삼성화재를 이기지 못했다. 지난 시즌 6경기를 포함해 이번 시즌까지 8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3전 전패)을 포함하면 삼성화재에 11연패를 당했다.

6승7패, 승점 19를 기록한 4위 대한항공은 3위 우리카드(승점 23)와의 격차를 좁히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5연승을 끝낸 삼성화재는 11승3패, 승점 31로 1위를 지켰다.

삼각편대를 이룬 라이트 마이클(25점), 신영수(17점), 곽승석(11점)의 활약이 대한항공의 승리를 이끌었다. 삼성화재에서는 레오가 38점으로 맹활약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해 패배를 맛봤다.

/유순호기자 sun@

프로배구 전적 25일

삼성화재	0	3	대한항공
현대건설	3	0	흥국생명

미풍에 그친 '태풍' 효과

KT 전태풍 영입 첫경기서 '홈 최다관중' LG에 패배 SK, 삼성 꺾고 공동선두 - 주희정 1400스틸 'KBL 1호'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창원 LG와 부산 KT와의 경기에 8,000명이 입장해 KBL 크리스마스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전적 25일

SK	22	30	15	16	83
삼성	10	16	18	24	68
전자랜드	24	20	22	20	86
KCC	20	12	16	13	61
LG	22	12	23	15	72
KT	12	16	16	22	66
KDB생명	10	11	22	16	59
국민은행	15	14	26	21	76

성탄절에도 농구 코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25일 열린 프로농구 경기에서 구장마다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

이날 서울 SK는 서울 삼성을 완파하고 하루 만에 다시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SK는 25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삼성과의 경기에서 83-68로 승리했다. SK는 '서울 라이벌' 삼성을 꺾고 19승8패를 기록하며 울산 모비스와 공동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삼성은 2연패에 빠졌다.

애런 헤인즈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코트니 심스는 이날 34점 14리바운드로 맹활약했다. '헤인즈 사태' 이후 치른 첫 경기였던 18일 KGC전에서 역전패를 당했던 SK는 이날 삼성에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추슬렀다. SK 주희정은 1스틸을 더해 정규리그 통산 1400 스틸을 올렸다. 한국 프로농구 1호 기록이다.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가 전주 KCC를 누르고 5위에 도약했다. 전자랜드는 찰스 로드와 차바위의 활약을 앞세워 86-61로 완승을 거뒀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전자랜드는 시즌 성적 13승14패를 기록해 서울 삼성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반면 KCC는 시즌 성적 11승15패가 되며 공동 7위가 됐다.

창원 LG는 홈경기 역대 크리스마스 최다 홈 관중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부산 KT를 72-66으로 누르고 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18승8패가 된 LG는 한 경기씩 더 치른 공동 1위 서울 SK와 울산 모비스(이상 19승8패)를 0.5경기 차로 바짝 뒤쫓았다.

반면 최근 고양 오리온스와 4대4 트레이드를 통해 전태풍을 영입한 KT는 전태풍 이적 후 첫 경기에서 LG에 무릎을 꿇었다. 14승12패가 되면서 3연패 늪에 빠졌다.

/김성준기자 ysw@metroseoul.co.kr

주희정 "부경아 고마워" 2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SK와 삼성의 경기 4쿼터에서 SK의 주희정(오른쪽)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사인 가장 많이 위조된 선수는 루스

미국 프로야구 전설의 베이브 루스(사진)가 올해 미국에서 가장 사인이 많이 위조된 스포츠 스타로 뽑혔다.

25일 미국 폭스스포츠에 따르면 베이브 루스는 미국 PSA-DNA 인증 서비스가 발표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루 게릭이 2위, 미키 맨틀과 테드 윌리엄스-조 디마지오가 공동 3위를 차지하는 등 메이저리그의 전설들이 위조 사인의 주요 타깃이 됐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4위. LA 다저스에서 류현진과 함께 뛰고 있는 아시엘 푸이그가 현역 선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5위를 기록했다.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야구선수 데릭 지터, 빙판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조 올랜도 PSA-DNA 회장은 "현재 거래되는 수많은 유명인 사인은 절반 정도만 진짜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귀국 지소연 "최고의 한해"

일본 축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소연(22·고베 아이낙)이 내년 포부를 밝혔다.

일본 여자 실업축구 나데시코리그 시즌을 마치고 25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지소연은 "첫해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지만 지난해에 기량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고 올해는 관련해 억속해져서 제일 좋은 시기를 보냈다"며 "시즌8에 성공하면서 일본에서는 정말 큰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일본 리그에서 뛴 지소연은 올해 2년 연속 리그 베스트11에 뽑히는 등 일본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고베 아이낙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지소연은 한국에서 홍명보 장학재단의 자선 축구경기 등 일정을 소화하고 현지 레이디스와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병근기자

'日 괴물투수' 다나카 류현진 동료 될까

라쿠텐 MLB 진출 허락

일본 괴물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25·라쿠텐 골든이글스·사진)의 메이저리그 진출 길이 열렸다.

닛칸스포츠·산케이스포츠 등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는 라쿠텐 구단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다나카의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승낙했다고 25일 보도됐다. 이에 따라 다나카는 조만간 에이전트를 선임하고 메이저리그의 문을 본격적으로 노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미국과 일본간 포스팅 시스템 개정안이 확정된 지 8일 만이다. 라쿠텐 구단은 25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케이스포츠는 다나카가 데릭 지터(뉴욕 양키스)의 에이전트인 케이시 클로즈와 손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나카가 마침내 미국에 진출함에 따라 연말연시 휴가에 들어간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FA)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이다.

내년 당장 팀의 3~4선발로 뛸 수 있는 다나카를 영입하고자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텍사스 레인저스 등 여러 명문 구단이 포스팅 시스템에 응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팅 시스템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다나카는 내년 1월 말께 메이저리그에서 새 둥지를 찾을 전망이다.

/김성준기자 ysw@

JAEJOONG. YUCHUN. JUNSU

CJeS

12월 26일

여러분과 처음 만난 날 오늘 10주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힘들고 아픈 기억보다 훨씬 큰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괜찮다 미소짓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재중 유천 준수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은 백번이고 만번이고 고맙다 해도 지치지 않을 여러분들과의 시간이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12월 26일 우린 처음 당신을 만났습니다